

■ 卷頭言 ■

새로운 교통세계를 향한 우리의 꿈

Our Dream of New Transportation Network

신 광 순

(한국철도공사 사장)

일전에 TV 방송을 통해 100여년 전 서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외국인 선교사가 촬영한 것들로 이 사진들 속에는 양반이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도 있었고, 전차가 남대문과 동대문 안으로 직접 통과되도록 선로가 놓여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차가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로마다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고속철도가 바람보다 더 빠른 시속 300Km로 달리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그 사진 속에 있는 100여년 전의 서울 풍경은 새삼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또한, 교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10%도 되지 못하는 현실과 분단 60년이 되도록 '반도의 섬'에 갇혀 대륙으로 달릴 수 없는 상황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도 KTX를 이용할 때마다 교통의 혁명이라는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서울역이 종착역이라는 애석함이 늘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철도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통을 이끌어 가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감하는 아픔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행히 근래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대륙철도 연결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운영함으로써 철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철도구조개혁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어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거나 국내에 만족할 수 없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절된 남북철도와 대륙철도를 연결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철도 운송시장을 주도하는 초일류 철도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철도인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업이며, 국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경제는 개별국가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EU, NAFTA 등 경제공동체 중심으로 변화되어 교역 및 자본이동에 대한 국제장벽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세계경제의 블랙홀(Blackhole)로 급부상하는 등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교역량의 증가 추세는 우리가 남북철도와 대륙철도를 통하여 국제철도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철도는 지난해 남북철도 시범열차를 운행키로 합의하는 등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국제철도운송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도 철도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도관련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UIC와 CCTST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CCTST 서울총회를 개최하고 OSJD에도 가입할 예정입니다. 세계철도의 신기술과 운영기법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2006년도 UIC 국제차량세미나와 2008년도 세계철도학술대회도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고속철도 운영 노하우 등 핵심역량을 근간으로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프랑스·일본·중국에 해외지사 설립키로 하였으며, 내부적인 국제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원 해외훈련도 더욱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체제의 국제시장에서 어떠한 도전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파워풀(Powerfull)하고 다이내믹(Dynamic)한 경영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서 성공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철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대한교통학회 회원 여러분의 고견은 우리 철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구축에 있어 국가간 해결과제인 서로 다른 궤간·차량·제도·운영방식 등 기술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및 국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연

구는 우리철도가 역경을 이겨내는 큰 힘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교통학회 회원 여러분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우리 철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도투자 확대 등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지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